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24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9(통53). 하늘에 가득 찬

♠ 공동기도

자비하신 하나님,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날씨만큼이나 냉랭해지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온기를 허락하여주십시오. 안으로만 움츠러드는 손발을 펴주십시오. 신음하는 이웃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게 해주십시오.

주님, 학벌과 외모로 존재가 평가되는 이 사회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작은 힘을 무기삼아 서로를 짓밟으며 보다 높은 곳에 서려고 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은 끌어내리고 낮은 사람은 패배자로 치부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서로의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위로의 말씀 마5:3,4

♠ 교 독 문 54. 시편126편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대표기도 I. 안 현 학생 II.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찬 양 363(통476). 내가 깊은 곳에서

성경봉독 I. 마11: 2-6

II. 요5:39-44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작은 메시아들

II.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거둠기도

- 찬 송 450(통376).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나님 의 길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운 시선을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던 지난날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주변의 말과 시선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만을 바라 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성서 속의 여성들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귄	인도 : 장영숙 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최희영 선생	안 현 학생
	김기석 목사	한상의 장로	이증자 집사

11월	영접위원	한완식 최철수 박석희 박애순 조항미 박성실
	헌금위원	방문성 백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언젠가 제 집사람이 막 싹을 틔운 가는 잎줄기 하나를 물컵에 담아 식탁 위에 두고 애지중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도 아닌데 식탁 위에까지 올려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은 특별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탁기 속에는 옷에 묻은 먼지 등을 거르는 거름망이 있는데 그게 그 거름망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거름망에 콩이 한 알 들어가 있는 걸 꼬집어내려고 하다가 그냥 두었는데, 그게 기어이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탁기가 어떤 것입니까. 온갖 더러움이 묻은 옷을 빠는 기계가 아닙니까. 햇빛 한번 들어오지 않는데다 세제가 풀린 거친 물살이 소용돌이치기도 하고, 찬물과 뜨거운 물이 뒤섞여 나오는 곳입니다. 한 알의 콩이 싹을 틔우기엔 정말 열악한 환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콩이 싹을 틔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자 집사람이 이번에는 새알처럼 주렁주렁 새끼감자를 매단 감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집사람이 지난여름에 바구니에다 햇감자를 신문지에 싸서 베란다 구석에 둔 것이었습니다. 감자는 햇빛을 받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에 푸른빛을 띠는데, 그게 인체에 독이 된다고 해서 햇빛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깜박 잊고 가을과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열어보자 감자가 싹을 틔운 것입니다. 잎은 나오지 않았지만 감자눈에 싹이 돋았으며, 아래로 줄기를 뻗어 주렁주렁 크고 작은 새끼감자를 매달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새끼들을 가지게 한 감자한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콩과 감자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은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흠도 바람도 물도 햇빛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콩과 감자는 싹을 틔웠습니다. 감자는 줄기를 뻗어 새끼까지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만일 제가 그런 환경에 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 콩이라면

더 이상 고통을 당하기 싫어 하루속히 죽기만을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옥토를 놔두고 왜 하필이면 세탁기 거름망 안에 들어가게 했는지 신을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콩은 신을 원망하기보다 그래도 세탁기 안에서도 거름망 안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최선의 삶을 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사가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조건 속에서 싹을 틔울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 감자라고 해도 빨리 죽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찾아오는 봄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로 몸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흙 한 줌, 물 한 모금 먹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새끼들을 잉태하는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들을 통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며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이 저에게 주는 고통은 어쩌면 신의 사랑의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신은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저를 쓰러뜨리는 방법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것도 모르고 늘 신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사람한테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하고 누가 묻자, “몸은 자라도 마음은 자라지 않는 식물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하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저의 마음을 자라게 하고 영혼을 성숙하게 합니다. 제가 그런 식물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기꺼이 고통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와 패배로 쓰러져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씨앗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모든 성공과 승리 속에는 실패와 패배의 씨앗이 숨어 있고, 모든 실패와 패배 속에는 성공과 승리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

인간에게 신은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신이 도와줄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

- 정호승,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중에서

행복

나는 세계에서 / 제일 /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와 찻집을 경영해서 / 생활의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 배움의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 아내가 다 사주니 /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 천상병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필순 백묘현 이정규 이인섭 임승동 백혜숙 양재성 임미심 허신열
무 명

월정헌금:

고속이 김미순 김지현 김지은 박준희 이기분 윤성종 김윤정 이인웅
오송경 장재영 김재영 김문주 이광섭 권미정 이재문 이경남

감사헌금:

조병무 송양진 한훈식 권채영 박숙현 최종훈 김금하 전성오 김윤숙
조병무 조관행 홍선희 김필순 신동례 임승동 백혜숙 심소재 무 명

생일감사헌금:

조병주 박옥식 김승현 김수진 김재환 방문성

녹색꿈 헌금:

이우엘 박옥식 윤성종 양재성 무 명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 해 숙	박 성 실	송 임 회	정 두 리
베들레헬	노 순 옥	정 경 례	김 윤 수	서 정 순
안 디 옥	임 정 자	임 정 자	이 은 옥	이 재 문
가 나 안	문 영 혜	이 명 희	김 명 순	신 영 희
갈 릴 리	안 정 숙	진 정 숙	조 병 주	안 정 숙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박 흥 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허 정 윤	박 효 선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김 재 광	이 기 분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김 금 순	이 봉 옥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권 미 숙	이 정 은
가버나움	안 흥 숙	오 현 정	안 흥 숙	오 현 정
나 사 렛	정 영 선	백 혜 숙	백 혜 숙	김 희 우
갈라디아	유 경 순	김 명 희	이 현 숙	박 옥 식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영 란	이 영 란	윤 정 화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백 성 래	박 혜 경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동호회** :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북촌 기행을 마련하였습니다.(안내: 박범희 집사) 기행에 참가하실 분들은 교육관으로 1시 20분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 **예수 포럼** : 한국기독교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예수포럼이 16일(월) 저녁 6시에 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강정구 교수(동국대학교 사회학과)입니다.
3. **수요집회** : '성서 속의 여성들'이란 주제로 2주간에 걸쳐 장영숙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4. **보고서** : 당회 준비를 위하여 각 부서의 2009년 활동 보고서를 29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여선교회 회장단** : 1~8여선교회 신·구 회장님들은 오후1시에 세미나실로 모이기 바랍니다.
6. **수료** : 9월부터 8주간 진행했던 신앙다지기 5기 수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태진 장석원 전충길 백성래 광권희
7. **신앙실천** :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내복과 목도리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난로와 보일러의 온도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십시오.

* 식당 봉사 : 에베소 속 (다음 주 : 빌립보 속)

* 설거지 봉사 : 광상준 최경미 (다음 주 : 이현순 박시내)

새교우 소개

조은나 (청년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